

가족끼리도 ‘접근금지 신청’

뺨맞은 아내·꾸중들은 고교생 등 광주·전남 가정폭력·갈등 잇따라

주부 주모(34)씨는 지난 1월 28일 광주시 동구 모 병원에 갔다. 시어머니 병간호를 위해서였다. 주씨는 병원 입구에서 병간호를 마치고 나오던 중 남편 김모(42)씨와 마주쳤다. 2년 전부터 모델에서 생활해온 주씨는 남편에게 “이런 생활이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화가 난 김씨는 주씨의 뺨을 한 차례 때렸다.

주씨는 격분해서 남편을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5일 전에도 본인

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주씨는 경찰에서 “식당 종업원으로 일해 번 돈으로 살림을 꾸려가는데, 남편의 폭력을 견뎌나가기가 너무 힘들다”며 100m 이내 접근금지 신청했다.

최근 가정폭력을 문제삼아 부부 또는 부모와 자식 간 접근금지 신청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일 광주지방방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가족 갈등으로 접근금지를 신청해 받아들여진 사례는 74건이

다. 2007년에도 103건에 달했다. 주로 부부 다툼이 많지만 최근엔 자식과 부모 사이 신청도 늘었다. 게 경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지난 1월 24일에 동구 산수동에 사는 괄모(78)씨가 “전화를 하려는데, 부인(68)이 수화기를 빼앗아 내 얼굴에 던졌다”며 부인 김씨를 상대로 접근금지를 신청했다.

지난 1월 15일에도 서구 금호동에 사는 박모(71)씨가 “말뚝을 자주 일으킨다”며 자신의 머리를 한 차례 때린 어머니(45)를 상대로 100m 이내 접근금지를 신청했다. 경찰은 가정폭력 사건이 벌어지면 조사를 마치고 피해자에게 “접근금지를 원하느냐”고 묻은 뒤 피해자가 접근금지를 신청하면, 폭력 정도

가 심한 경우만 경찰에 넘긴다. 이후 법원이 접근금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기각할지 결정한다. 광주지방법원 관계자는 “휴가를 사용하거나 매일 폭력을 휘두르지 않는 한 경찰에 접근금지 신청을 올리는 일은 드물다”며 “접근금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집 길이가 100m 이상이면, 집이 누구 명의로 해자가 나가야 하고 거기엔 구속된다”고 말했다.

광주지법 가정지원 최철민 판사는 “가정폭력의 정도가 심한 경우 접근금지 처분과 함께 경찰의 기소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또 나타난 ‘타르볼’

무안·신안 잇따라 발견 어민 긴장

지난 2007년 태안 기름유출 사고 당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기름 찌꺼기 덩어리 ‘타르볼(tar ball)’이 무안과 신안 등 전남 서남해안에서 잇따라 다시 발견됐다. 어민들의 신고가 잇따라 긴장하고 있다.

1일 한국해양연구원과 신안군 등에서 발생한 타르볼 등 일부를 수거해 해양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으며, 김 양식 밭에 묻은 타르볼은 3월 말 예정된 2차 조사에서 수거해 분석할 계획이다. 어민들은 2월 중순부터 유입된 타르볼로 인해 신안에서만 김 양식장 5천척이 피해를 입었으며 추가 보상을 요구했다.

지난달 26일 1차 조사가 나섰던 해양연구원 관계자는 “태안 원유사고와의 연계성 및 유입 경로 등은 좀 더 정확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이는 지난달 12일 실시한 업체 선정 심사과정에서 1위로 선정된 업체와 관련된 구의원이 개입하고, 입찰자격 갖추지 않는 사업자를 심사대상에 포함하는 사실이 드러나는 등 비난 여론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남구는 지난 2005년 10월에 실시한 분뇨처리업체 선정과정에서 구의원이 개입하고, 업체 대표가 심사위원에 금품 로비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입건된 뒤 나머지 업체로만 심사, 업체를 선정하면서 공정상 시비에 휘말린 적이 있어, 이번 공모도 똑같은 양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남구 쓰레기업체 선정 말썽 여전

광주시 남구가 쓰레기처리 업체 선정 불공정 의혹에 따라 업체를 재선정하면서 전면 재공모를 하지 않고 기존 응모자 가운데 업체를 결정할 방침이어서 투명하지 못한 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남구는 1일 “심사위원 부적격 시비 등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업 민간위탁 운영사업자 선정을 2일 재심사를 통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재심사는 기존에 선정된 2개 업체와 결격사유가 드러난 3개 업체 등 5개 업체를 제외하고, 입찰에 참여했던 일반쓰레기 처리업체 6곳과 읍·면쓰레기 처리업체 4곳을 대상으로 이뤄지게 된다.

이는 지난달 12일 실시한 업체 선정 심사과정에서 1위로 선정된 업체와 관련된 구의원이 개입하고, 입찰자격 갖추지 않는 사업자를 심사대상에 포함하는 사실이 드러나는 등 비난 여론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남구는 지난 2005년 10월에 실시한 분뇨처리업체 선정과정에서 구의원이 개입하고, 업체 대표가 심사위원에 금품 로비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입건된 뒤 나머지 업체로만 심사, 업체를 선정하면서 공정상 시비에 휘말린 적이 있어, 이번 공모도 똑같은 양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양 유괴범 3시간만에 검거

경찰의 발 빠른 수사와 공중전화 추적 시스템 덕분에 어린이 유괴사건 용의자가 발생 3시간여만에 검거됐다.

광양 모 초등학교 운동(9)군 납치 사건을 수사 중인 광양경찰은 지난달 31일 오후 4시23분과 4시45분께 인근의 여우리가 “범인 권모(38)씨가 공중전화를 이용, 두 번의 함박전화를 했다”고 진술한 것을 토대로 유괴자를 뒤를 쫓기 시작했다.

경찰은 유괴의 어머니 휴대전화에 찍힌 번호를 토대로 권씨가 두 번 모두 광양군 광양읍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한 사실을 확인한 뒤 “공중전화 추적시스템”을 가동해 범인의 위치추적이 나왔다. 이를 알리 없던 권씨는 1

시간 뒤 유괴의 어머니에게 또 다시 전화를 걸었다.

경찰은 권씨가 순천시 조계동의 한 공중전화를 이용한 사실을 알아낸 뒤 순천과 여수 등의 주요 도로와 시내 곳곳에 형사들을 배치, 도주로를 차 단했다. 이 때 순천시 풍덕동 한 수괴 공중전화 앞에서 잠복근무 중이던 광양경찰 나종화 팀장 등 4명은 권씨가 유괴의 어머니와 전화통화한 사실을 알아채고 현장에서 권씨를 붙잡았다.

한편, 강희락 경찰청장은 3일 광양경찰서를 방문, 경찰관들을 격려하고 전남지방경찰청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광양=김준호기자 chkim@

오락실 단속 무마 돈 받은 경찰 체포

광주지검은 1일 사건 무마를 대가로 돈을 받은 광주경찰청 모 파출소 소속 최모(43) 경사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경사는 지난해 관산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하면서 사행성 오락실 단속 사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민원인으로부터 수십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진도군수 측근·조선소 돈거래 대가성 없었다

뇌물로비 의혹이 일었던 박연수 진도군수 측근과 조선소 사이의 돈거래에 대가성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2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2007년 11월 K조선소가 박 군수 측근의 통장에 1억1천여만원을 입금한 것을 확인하고 이 돈의 대가성을 조사했으나 정상적인 땅 거래였던 것으로 규명됐다.

이 돈은 고려 조선소가 진도군 울돌목 조선소 조성 부지 내 약 9천㎡를 박 군수의 측근으로부터 사들이면서 입금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수완지구 ‘중앙 버스전용차로제’ 시행

광주에서 중앙 버스전용차로제가 첫 시행된 1일 광주시 광산구 수완지구 임방울대로를 통한 버스가 달리고 있다. 중앙 버스전용차로 시범 운영으로 통근 버스와 시외버스는 중앙 차로로, 시내버스는 가로변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날 홍보 부족 등으로 승용차 운전자들이 중앙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기도 했다.

/최현태기자 choi@kwangju.co.kr

서구청장 팬클럽 흡피 개설자 선거법 위반 논란

포털사이트에 영양향우회 카페를 만들었다. 특히 전 청장과 같은 고향출신인 김씨는 이 카페 공지란에 전 청장의 팬클럽 홈페이지를 소개했다.

김씨는 팬클럽을 소개하면서 전 청장의 직책과 이력을 게재하고 전 청장의 팬클럽 홈페이지에 자동접속되도록 연결했다.

그러나 이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선거운동기간 위반죄’에 해당된다.

1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이 담긴 내용을 소개를 목적으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김씨는 “전 청장이 영양출신이라는 소식을 듣고 자발적으로 팬클럽 홈페이지를 개설해 운영 중”이라며 “선거법 위반인 줄 몰랐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니원침 (7768)



건설현장 돈 뜯은 사이비 기자 구속

광주지검 특수부는 1일 모 전문기자 기자 천모(50)씨를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천씨는 2005년 11월 18일 북구 임동 한 아파트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소음, 먼지 등 민원 소지가 많으니 주의해라. 돈을 빌려주면 한 두달 안에 갚겠다”며 100만원의 받는다. 등 각종 건설현장에서 최근까지 275차례에 걸쳐 5천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

“사진 찍지마” 집회 중 직원 폭행

○광주광산경찰은 1일 “사진 촬영 한다”는 이유로 대안통은 직원을 폭행한 화물연대 광주지부 조합원 정모(39)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전날 오후 3시35분께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공장 정문에서 “운송료 인하 규탄 집회”를 하던 중 이를 촬영한 대안통은 직원 지모(38)씨의 얼굴과 가슴을 때린 혐의.

○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다른 조합원들과 금호타이어 공장으로 들어 가려는 지씨를 제지했고, 지씨가 이에 항의하며 사진 촬영을 하자 폭력을 행사.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부동산 경제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앞에서 지산주유소쪽으로 70m)

정비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매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꼼꼼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을 추천합니다.

근린시설/월매 대표이사 010-7570-7525 **아파트/빌라 평어사 010-5879-0005** **주택/재개발 북경평어사 010-2611-5588**

소재지	대지/건물	감정가	최저가	비고
운남동	대1139, 건1959	11억	62억	신속수입형
운남동	대539, 건1309	5.9억	29억	8층빌딩
운남동	대238, 건75	28억	18억	8층빌딩
수기동	대50, 건103	4억	19억	3층일식집
중흥동	대100, 건321	8억	2억	7층빌딩
생인동	대137, 건501	18억	13억	5층유형주택
능성동	대70, 건1180	63억	35억	예식장
소촌동	대82, 건1387	64억	36억	7층빌딩
노안동	대83, 건2003	59억	49억	주유소
사석동	대151, 건213	59억	29억	2층일식집
고흥군	대128, 건177	31억	17억	휴게소
평안동	대52, 건96	2억	19억	주유소
송정동	대127, 건175	59억	39억	원형44세대

주택/재개발 북경평어사 010-2611-5588

소재지	대지/건물	감정가	최저가	비고
운남동	대1139, 건1959	11억	62억	신속수입형
운남동	대539, 건1309	5.9억	29억	8층빌딩
운남동	대238, 건75	28억	18억	8층빌딩
수기동	대50, 건103	4억	19억	3층일식집
중흥동	대100, 건321	8억	2억	7층빌딩
생인동	대137, 건501	18억	13억	5층유형주택
능성동	대70, 건1180	63억	35억	예식장
소촌동	대82, 건1387	64억	36억	7층빌딩
노안동	대83, 건2003	59억	49억	주유소
사석동	대151, 건213	59억	29억	2층일식집
고흥군	대128, 건177	31억	17억	휴게소
평안동	대52, 건96	2억	19억	주유소
송정동	대127, 건175	59억	39억	원형44세대

주택/재개발 북경평어사 010-2611-5588

소재지	대지/건물	감정가	최저가	비고
운남동	대1139, 건1959	11억	62억	신속수입형
운남동	대539, 건1309	5.9억	29억	8층빌딩
운남동	대238, 건75	28억	18억	8층빌딩
수기동	대50, 건103	4억	19억	3층일식집
중흥동	대100, 건321	8억	2억	7층빌딩
생인동	대137, 건501	18억	13억	5층유형주택
능성동	대70, 건1180	63억	35억	예식장
소촌동	대82, 건1387	64억	36억	7층빌딩
노안동	대83, 건2003	59억	49억	주유소
사석동	대151, 건213	59억	29억	2층일식집
고흥군	대128, 건177	31억	17억	휴게소
평안동	대52, 건96	2억	19억	주유소
송정동	대127, 건175	59억	39억	원형44세대

주택/재개발 북경평어사 010-2611-5588

남성 헤어 기능장화 **大山프리모남녀가발**

가발 타사제품 보상판매 **최신제품** NAVER 뉴스이대산프리모

SBS · KBC 「사람세상 방영」

초슬림!!

스킬과 망이 초극세화하여 육안으로 확인할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며 이질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1997년 CAT 블렌드 세계수준대 최우수품질에 빛나는
• 1:1 원장직접 개별상담실 운영
• 타사제품과 비교할수 없는 전국 최저가 기술
• 타사제품 고가보상판매 실시
• 타사제품에 만족하지 못하신 분은 상담해 드립니다.

최상품 최저가로 최고의 만족을 드립니다.

귀하의 품위와 인격을 높여주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기근 상가 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무로전화 080-323-5858**

※여성무모(無毛)전혀 한통화OK! ※확실 무피함들기발의 모든것 해결할 ※타사 제품도 신기술로 보완 시술 가능

대안동 대1799, 건2913 28억 18억 18억 18억 18억 18억 18억

신성동 대1387, 건1387 13억 13억 13억 13억 13억 13억 13억

사석동 대151, 건213 59억 29억 29억 29억 29억 29억 29억

고흥군 대128, 건177 31억 17억 17억 17억 17억 17억 17억

평안동 대52, 건96 2억 19억 19억 19억 19억 19억 19억

송정동 대127, 건175 59억 39억 39억 39억 39억 39억 39억

원형44세대 원형44세대 원형44세대 원형44세대 원형44세대 원형44세대 원형44세대 원형44세대 원형44세대